

유럽연합의 농축산물 생산비 동향*

민선형

1. 서론

곡물, 유제품, 쇠고기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농가경영비와 총경제적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농장경영관리 및 국제 경쟁력 비교지표로서 경영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유럽연합의 농가경영비를 품목별(곡물, 우유, 쇠고기)로 살펴본 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그룹별로 경영비뿐만 아니라 자가노력비(가족노동력 포함)를 포함한 총경제적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유럽연합의 농가경영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임금, 임차료 및 이자를 제외한 농장경영에 필요한 현금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 광열·동력비(에너지), 종자, 비료 농약 등이 포함된다. 총수익(Gross margin)은 제품으로부터의 조수입과 경영비의 차이를 의미한다.

본고에서 분석된 생산비용과 마진은 농장회계데이터네트워크(Farm Accountancy Data Network: FADN)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추정되었다. FADN은 매년 농장과 관련된 구조적이고 회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표본 조사의 유럽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농업경영체(agricultural holdings)의 소득과 비즈니스 활동을 감시하고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CAP)의 효과들을 평가하는데 있다.

* 본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이 지난 6월에 발표한 "EU production cost overview"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선형 연구원이 작성하였다(minsh1026@krei.re.kr, 02-3299-4280).

FADN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비용들은 상품생산 조건¹⁾에 부합하는 특정 농가표본을 기반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 생산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조사된 표본농가들은 곡물 생산농가의 28%, 우유 생산농가의 71%, 쇠고기 생산농가의 74%를 대표한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경영비(operating costs)와 총 수익(gross margins)은 추정치로²⁾, 농업가격지수(agricultural price indices)와 투입비용지수(input price indices)를 기반으로 하였다.

유럽연합의 원회원국 6개국은 이후 6차에 걸친 추가 회원국 가입을 통하여 27개국이 되었으며, 연도별 가입국은 <표 1>과 같다. 유럽연합 회원국을 그룹별로 나눠보면, 동구권 12개국이 가입하기 전 유럽연합은 EU-15라고 칭하고 추가된 동구권 12개국을 EU-12라고 부르며, 2004년에 가입한 국가를 EU-10, 2007년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EU-2로 부른다.

표 1 유럽연합 회원국 구분

연도	가입국	구분
195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EU-15
1973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1981	그리스	
1986	스페인, 포르투갈	
1995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2004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EU-10
2007	불가리아, 루마니아	EU-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vol132, "EU공동농업정책의 변화여건"

2. 2007년 경제위기가 농가경영비와 소득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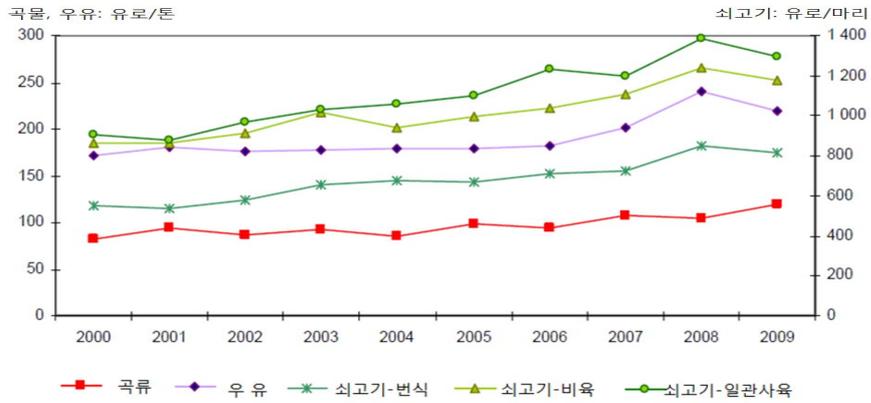
<그림 1>과 같이 E-15의 품목별 단위당 경영비는 2000~2007년 동안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이후 우유 생산에 투입되는 경영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관사육농가³⁾의 쇠고기 경영비의 경우 평균 4.6%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영비 증가의 원인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유의 경우는 에너지와 노동비 상승으로, 곡물의 경우에는 비료, 기계, 종자와 작물보호 비용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1) 예를 들면, 전체 생산량의 40-50% 이상이 조사품목(곡물, 우유, 쇠고기)에서 발생하는 농가들

2) 총수익(gross margins)=총 수취액(total receipts)-경영비(operating costs)

3) 축산농가는 3가지 유형으로 경산우만을 사육하는 번식우농가(breeders), 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직접 사육하는 '일관사육농가(breeders and fatteners)', 송아지를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사육하는 '비육농가(fatteners)'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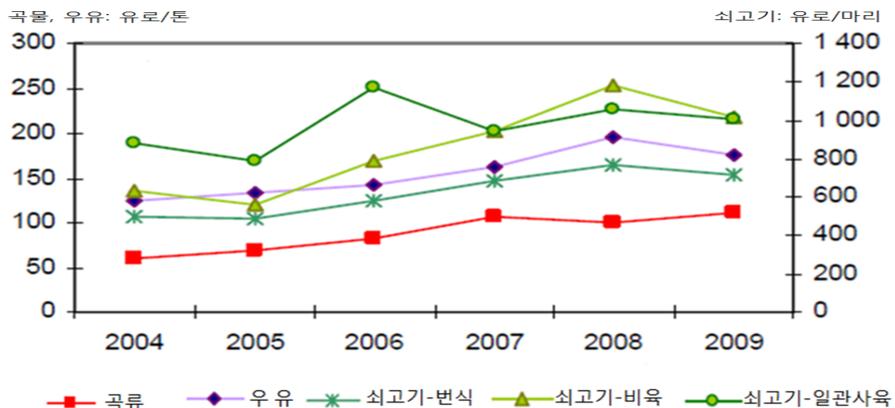
그림 1 EU-15 경영비(operating costs)



주: 2008년과 2009년 비용은 추정치임.
 자료: EU FADN-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EU-10의 품목별 경영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04~2007년 동안 경영비 증가는 최저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쇠고기(일관사육농가)’로 연평균 증가율은 2.5% 수준이며, 최고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곡물로 연평균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EU-10 경영비(operating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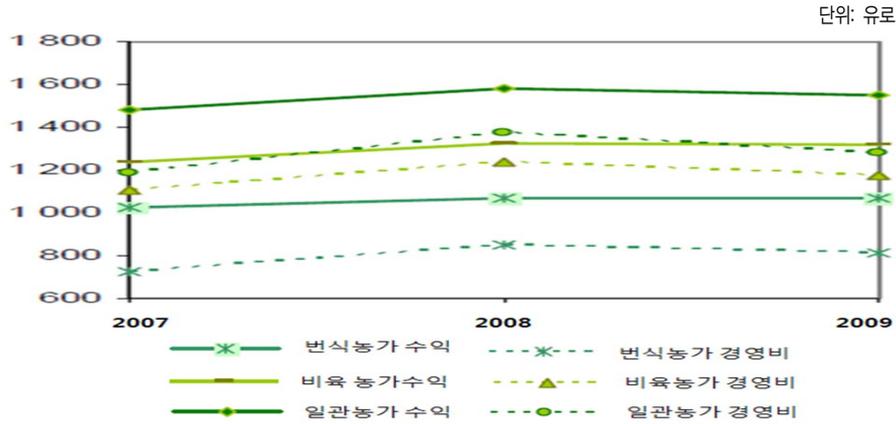


주: 2008년과 2009년 비용은 추정치임.
 자료: EU FADN-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2008년 축산부문 경영비는 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쇠고기는 전년대비 26%, 우유는 38% 증가하여 총수익은 감소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사료비 하락에 힘입어 경영비는 감소하였지만 2007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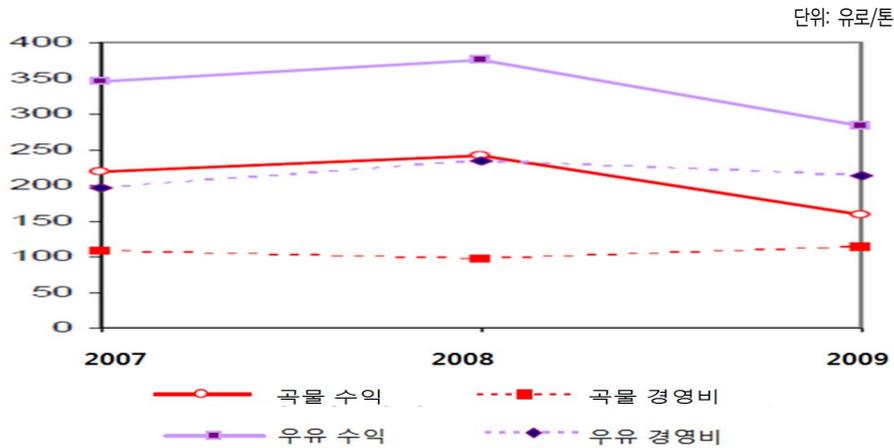
반면 곡물의 경우는 2008년 단위당 수확량 증가로 인해, 2007년 대비 경영비가 10%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료, 기계, 종자, 작물방제비의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비는 17%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곡물과 우유 가격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가 2009년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9년 우유와 곡물의 총수익은 다른 때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그림 4).

그림 3 쇠고기 수익과 경영비



주: 1) 2008년과 2009년 비용은 추정치임.
 2) 수익에는 정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음.
 3) 번식/일관농가는 암소, 비육농가는 수소를 기준으로 함.
 자료: EU FADN-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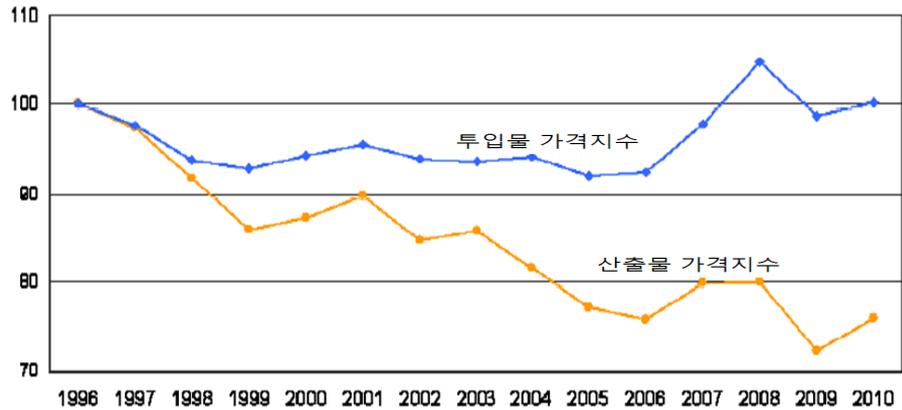
그림 4 우유와 곡물의 수익과 비용



주: 1) 2008년과 2009년 비용은 추정치임.
 2) 수익에는 정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EU FADN-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그림 5>는 최근 EU-27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변동을 나타낸 것으로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이 2005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투입물보다 산출물의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투입물과 산출물의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가격과 환율, 금융과 같은 농업의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EU-27의 농업 산출물과 투입물 가격지수 동향



주: 1996년을 100으로 함.
 자료: Eurostat-price statistics-Elaboration DG AGRI.

3. 유럽연합의 그룹별 농가경영비 비교

농가의 경영비(Operating costs)는 총경제적 비용(Total economic costs)의 일부로서, 총경제적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들은 <표 2>와 같다.

표 2 총경제적 비용의 구성

총경제적 비용		세부내용
경영비	직접비 (Specific)	종자, 비료, 작물방제비, 사료비, 수의료비
	간접비 (Non-specific)	농기계와 건물, 연료, 거래비용, 각종 세금, 보험 및 그 외 직접비용
감가상각비		
외적요인비		임금, 임차비 및 이자
기회비용		가족노동비, 자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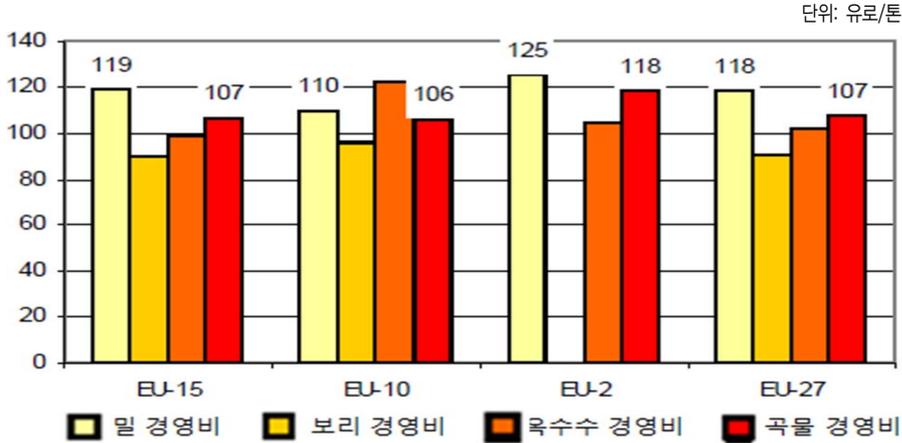
자료: EU FADN- DG AGRI, Farm economic brief, July,2011

<그림 6>와 같이, 2007년도 곡물 경영비는 회원국 그룹 간에 차이는 있지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옥수수 수확량이 급격히

2007년의 EU 회원국 그룹 간의 농가 경영비는 곡물 경영비를 제외한 우유와 쇠고기 생산 경영비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하여 단위 면적당 경영비가 EU-27의 평균보다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곡물의 단위 면적당 생산비용 변화는 그 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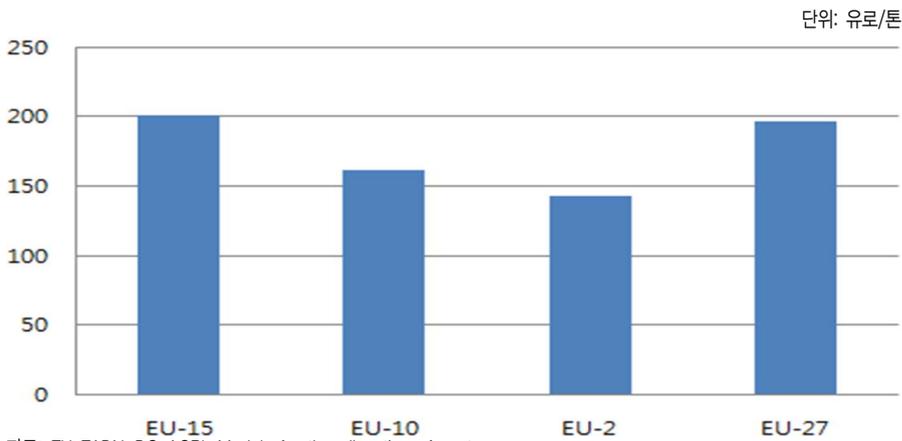
그림 6 곡물 경영비(2007년)



자료: EU FADN-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EU-10과 EU-2의 우유 생산의 톤당 경영비는 EU-27 평균보다 각각 18%, 27%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간의 경영비 차이가 곡물보다 더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번식농가의 마리당 경영비는 회원국 그룹들 간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비육농가와 일관사육농가는 우유와 마찬가지로 그룹들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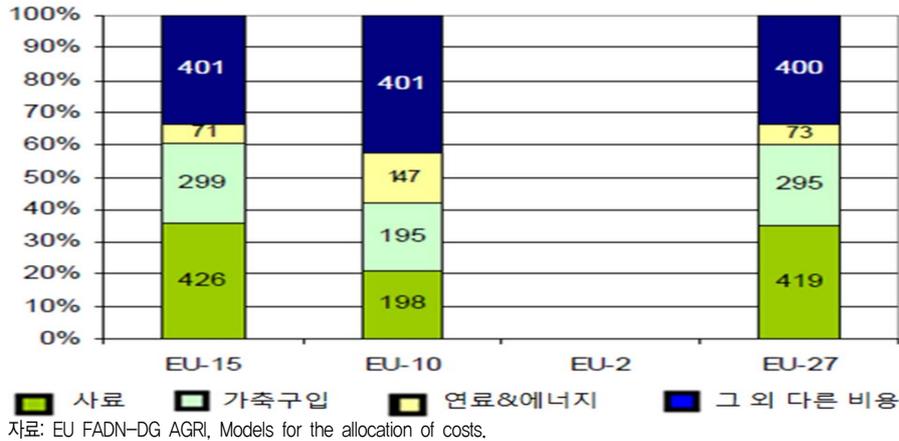
그림 7 우유 경영비(2007년)



자료: EU FADN-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및 농기계 유지비와 에너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의 경영비 중 간접비 (Nom-specific)는 다른 그룹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10 EU 그룹별 쇠고기 경영비 비교(2007년)



4. 외원국들 간의 경영비(operating costs) 비교

곡물, 우유, 쇠고기의 국가별 평균 경영비와 EU-27의 평균 경영비를 비교해 본 결과, 포르투갈과 벨기에가 EU-27의 평균과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국가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일관사육농가의 쇠고기 경영비는 EU-27 평균보다 63% 낮고, 벨기에의 쇠고기 경영비는 84%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국가별 경영비 차이는 생산 시스템의 다양성과 그 상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비용측면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품목에 대한 회원국들의 경영비 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표 3>와 같다.

국가별 농가경영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산 시스템의 다양성과 그 품목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비용측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표 3 경영비에 따른 EU회원국 분류

구분	국가
EU-27의 평균보다 경영비가 낮은 국가	스페인,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EU-27의 평균과 경영비와 비슷한 국가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영국, 사이프러스, 체코,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EU-27의 평균보다 경영비가 높은 국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자료: EU FADN- DG AGRI, Farm economic brief, July,2011

<표 3>에 상기되지 않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혼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우유 생산에 대한 경영비는 낮지만 쇠고기 생산의 경우 매우 높은 경영비를 나타냈다. 포르투갈의 경우, 쇠고기 생산에 대한 경영비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곡물 생산에 대한 경영비는 낮지 않았다.

EU 회원국들 사이의 경영비 차이는 모든 회원국이 유로존(Eurozone)³⁾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유로(euro)의 관점에서 노동, 지대, 건물들의 가치는 비유로(non-euro)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감소하지만, 반면 비료, 농약, 에너지 등과 같은 거래가 쉬운 투입물들의 가격은 더욱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그림 12>은 2007년 회원국과 품목을 기준으로 단위당 평균 경영비와 총수익(Gross margin)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영비와 총수익 사이에서 규칙적인 부(negative)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비와 총수익은 상품 가격의 수준과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련 보조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경영비가 필연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높은 경영비가 낮은 수익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각각 매우 높은 경영비에도 불구하고 총수익은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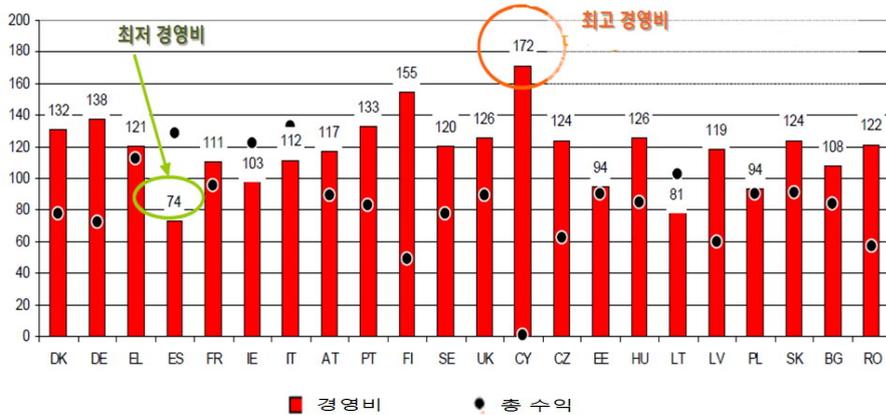
곡물의 경우, 키프로스³⁾와 핀란드가 가장 높은 경영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요인으로 경영비 증가에 기인하였다. 키프로스의 경우, 높은 비료가격과 작물방제비가 높은 경영비를 야기하는 반면 핀란드에서는 농기계와 건물 유지 및 기타 직접적 비용들(보험, 세금 등)이 경영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특히 스페인은 대부분의 상품에서 매우 낮은 경영비를 나타낸다. 이러한 낮은 비용에 대한 주요 요인은 회원국과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폴란드에서 우유 생산의 경영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리투아니아는 톤당 112유로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몰타와 핀란드는 가장 높은 우유 생산경영비를 가진 국가로 몰타는 톤당 309유로로 경영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서 2011년 1월 1일 새로 가입한 에스토니아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벨기에·키프로스·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슬로바키아·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슬로베니아·스페인 등 총 17개국이 가입되어있다. 유럽연합 가입국이면서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스웨덴·영국·불가리아·체코·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 10개국이다.

그림 11 국가별 곡물 생산의 경영비와 총수익(2007년)

단위: 유로/톤



주: 1) DK(독일), DE(덴마크), ES(스페인), FR(프랑스), IE(아일랜드), IT(이탈리아), AT(오스트리아), PT(포르투갈), FI(핀란드), SE(스웨덴), UK(영국), CY(키프로스), CZ(체코), EE(에스토니아), HU(헝가리), LV(라트비아), LT(리투아니아), PL(폴란드), SK(슬로바키아), BG(불가리아), RO(루마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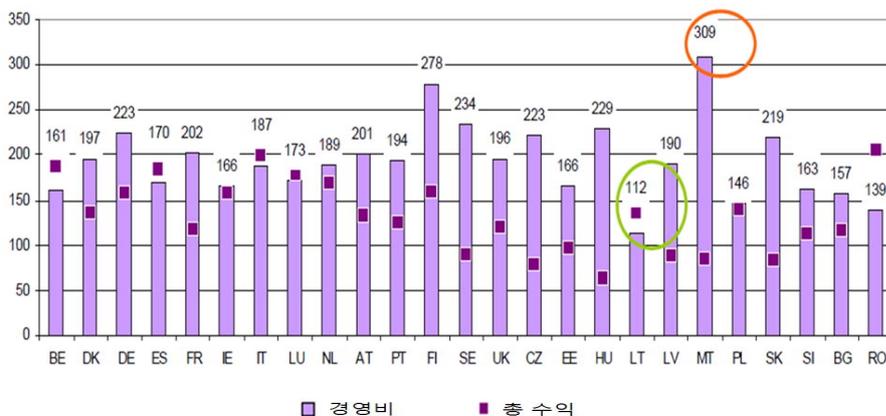
2) 총수익은 관련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임.

3)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EU FADN - DG AGRI

그림 12 국가별 우유 생산의 경영비와 총수익(2007년)

단위: 유로/톤



주: 1) BE(벨기에), DK(독일), DE(덴마크), ES(스페인), FR(프랑스), IE(아일랜드), IT(이탈리아), LU(룩셈부르크), NL(네델란드), AT(오스트리아), PT(포르투갈), FI(핀란드), SE(스웨덴), UK(영국), CY(키프로스), CZ(체코), EE(에스토니아), HU(헝가리), LV(라트비아), LT(리투아니아), MT(몰타), PL(폴란드), SK(슬로바키아), SI(슬로베니아), BG(불가리아), RO(루마니아)

2) 총수익은 관련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임.

3)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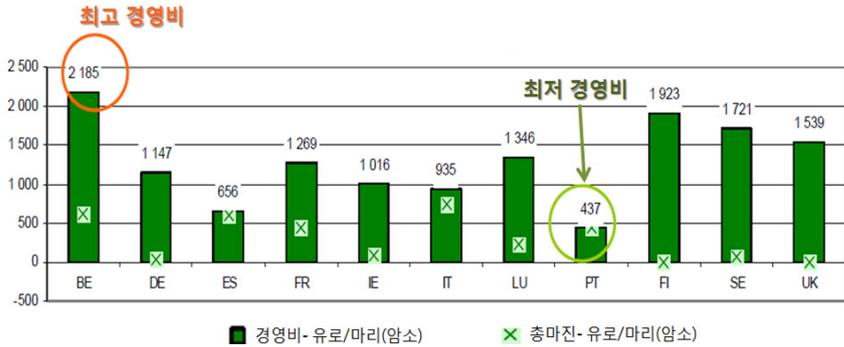
자료: EU FADN - DG AGRI

쇠고기 부문에서 비용과 수익을 비교할 때에는 2가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비용과 수익의 단위는 판매된 암소 한 마리 또는 수컷축우 한 마리이다. 둘째, 회원국별의 최종생산물은 항상 균일한 품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별 쇠고기의 평균 경영비는 국가의 환경조건과 번식 및 사육농가들에 대한 품질지향(quality-oriented) 시스템의 존재 유무를 반영한다. <그림 13>에 따르면, 쇠고기 생산의 경영비는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에서 높은 반면,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몇몇의 국가들은 축산농가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른 수준의 경영비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대체로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대해서는 낮은 경영비를 보이는 반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경영비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쇠고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과 상관없이 축산농가는 대체로 높은 총수익을 가진다.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모든 축산농가 형태에서 매우 낮은 경영비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국가별 쇠고기 생산의 경영비와 총수익(2007년)



<일관사육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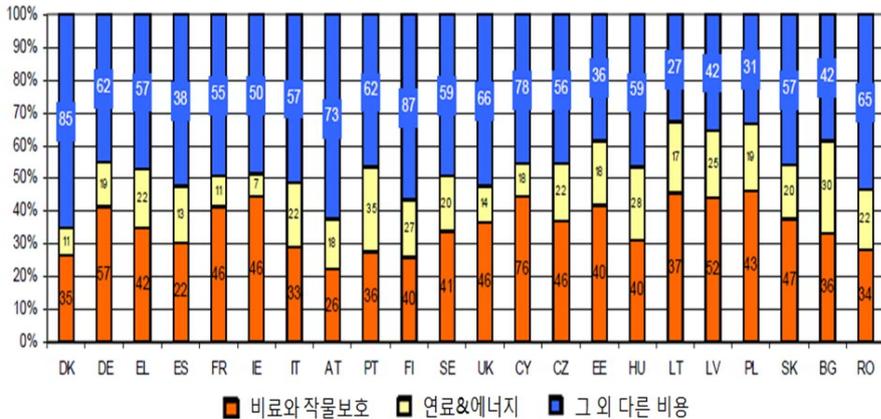


- 주: 1) BE(벨기에), DK(독일), DE(덴마크), ES(스페인), FR(프랑스), IE(아일랜드), IT(이탈리아), LU(룩셈부르크), AT(오스트리아), PT(포르투갈), FI(핀란드), SE(스웨덴), UK(영국), CZ(체코), SI(슬로베니아)
 2) 총수익은 관련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임.
 3)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EU FADN - DG AGRI

경영비의 구조는 회원국들마다 매우 다르다. 비료와 작물방제비는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의 곡물 생산의 경영비는 약 45%를 차지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약 21% 수준이다. 포르투갈, 헝가리, 라트비아는 곡물 생산의 경영비에서 연료 및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14 국가별 곡물 경영비의 구성요소(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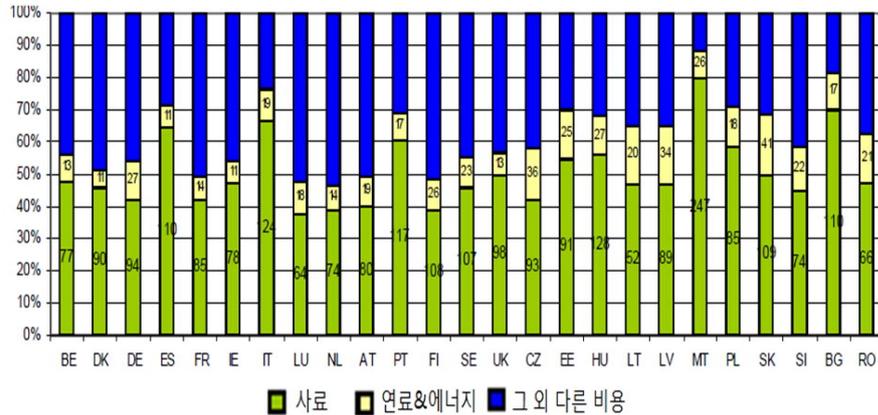


- 주: 1) BE(벨기에), DK(독일), DE(덴마크), ES(스페인), FR(프랑스), IE(아일랜드), IT(이탈리아), LU(룩셈부르크), AT(오스트리아), PT(포르투갈), FI(핀란드), SE(스웨덴), UK(영국), CZ(체코), SI(슬로베니아)
 2)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EU FADN - 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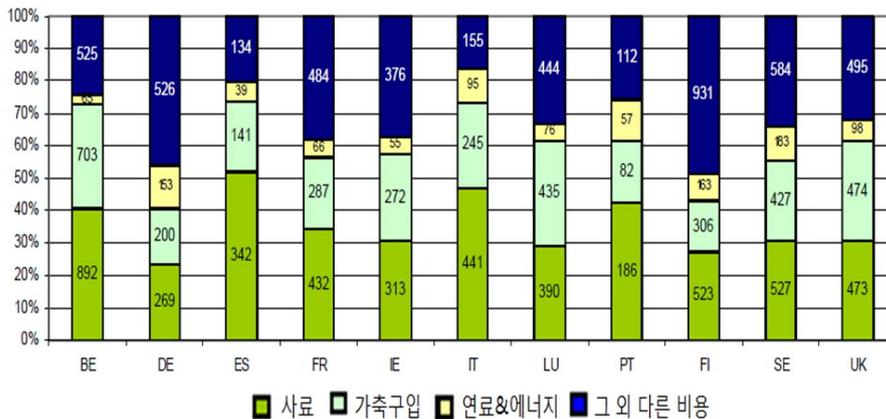
우유생산에서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룩셈부르크 36%에서, 몰타 80%와 같이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비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몰타의 우유와 쇠고기 생산의 경영비 주요 구성요소이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곡물, 우유, 쇠고기 생산에 대한 기타 경영비가 전체 경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농기계와 건물 유지비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15 국가별 우유 생산의 경영비 구성요소(2007년)



주: 1) BE(벨기에), DK(독일), DE(덴마크), ES(스페인), FR(프랑스), IE(아일랜드), IT(이탈리아), LU(룩셈부르크), AT(오스트리아), PT(포르투갈), FI(핀란드), SE(스웨덴), UK(영국), CZ(체코), SI(슬로베니아)
 2)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EU FADN - 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그림 16 국가별 쇠고기 생산의 경영비 구성요소(2007년)



주: 1) BE(벨기에), DE(덴마크), ES(스페인), FR(프랑스), IE(아일랜드), IT(이탈리아), LU(룩셈부르크), PT(포르투갈), FI(핀란드), SE(스웨덴), UK(영국)
 2)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EU FADN - 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5. 유럽연합(EU)의 총경제적 비용(Total economic costs)

본 장에서는 경영비와 이 외 다른 모든 비용들을 포함한 총경제적 비용(total economic cost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총경제적 비용이란 경영비, 감가상각비, 외적비용, 가족노동비와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총경제적 비용은 토지, 노동, 자본의 구조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농가의 비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경쟁력 차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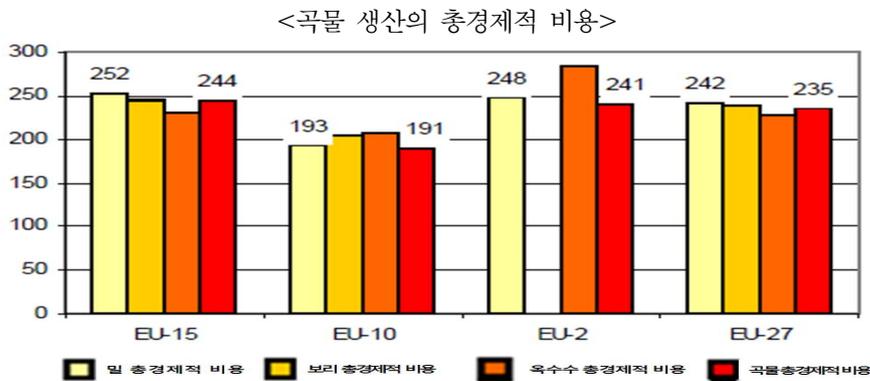
<그림 17>을 살펴보면, EU-15와 EU-2의 총경제적 비용은 EU-27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2007년에 옥수수 수확량의 감소로, EU-2의 옥수수 총경제적 비용은 EU-27의 평균보다 25% 높은 수준이었다. EU-2의 곡물의 총경제적 비용은 EU-1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EU-10은 가족노동력의 유입이 적기 때문에 품목별 총경제적 비용은 EU-27과 비교하여 9~20%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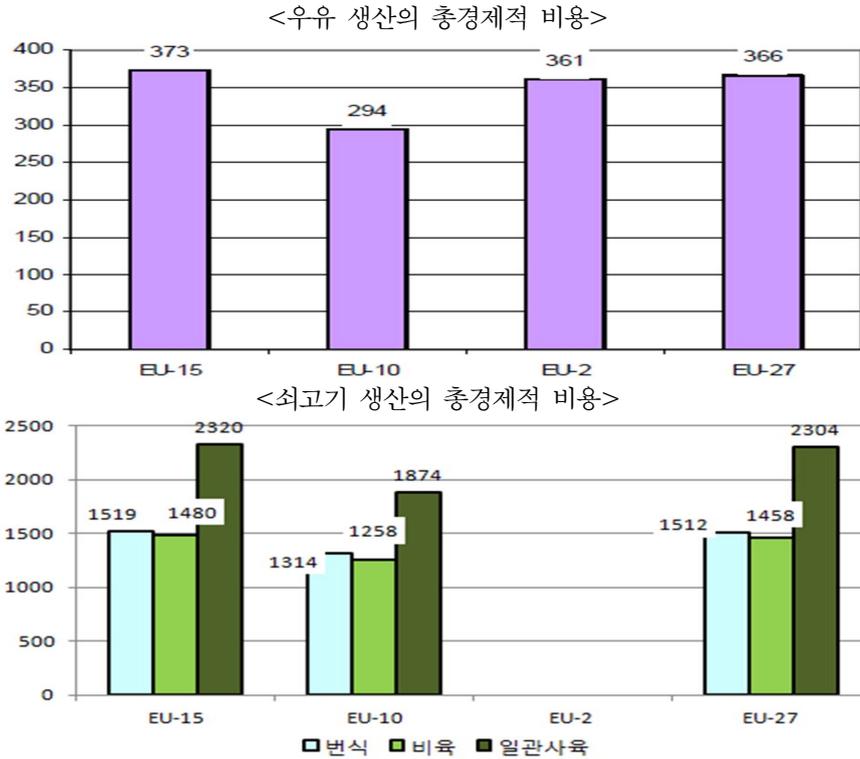
우유 생산의 경우 EU-10의 외부임금은 순이익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곡물과 우유 생산에 대한 EU-10의 총경제적 비용 증가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4년 이후 EU-10의 외적요인과 가족노동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가는 생활수준향상과 회원국의 통화가치상승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총경제적 비용은 토지, 노동, 자본의 구조에 대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농가의 비용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들 간의 경쟁력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17 EU 그룹별 총경제적 비용(2007년)

단위: 유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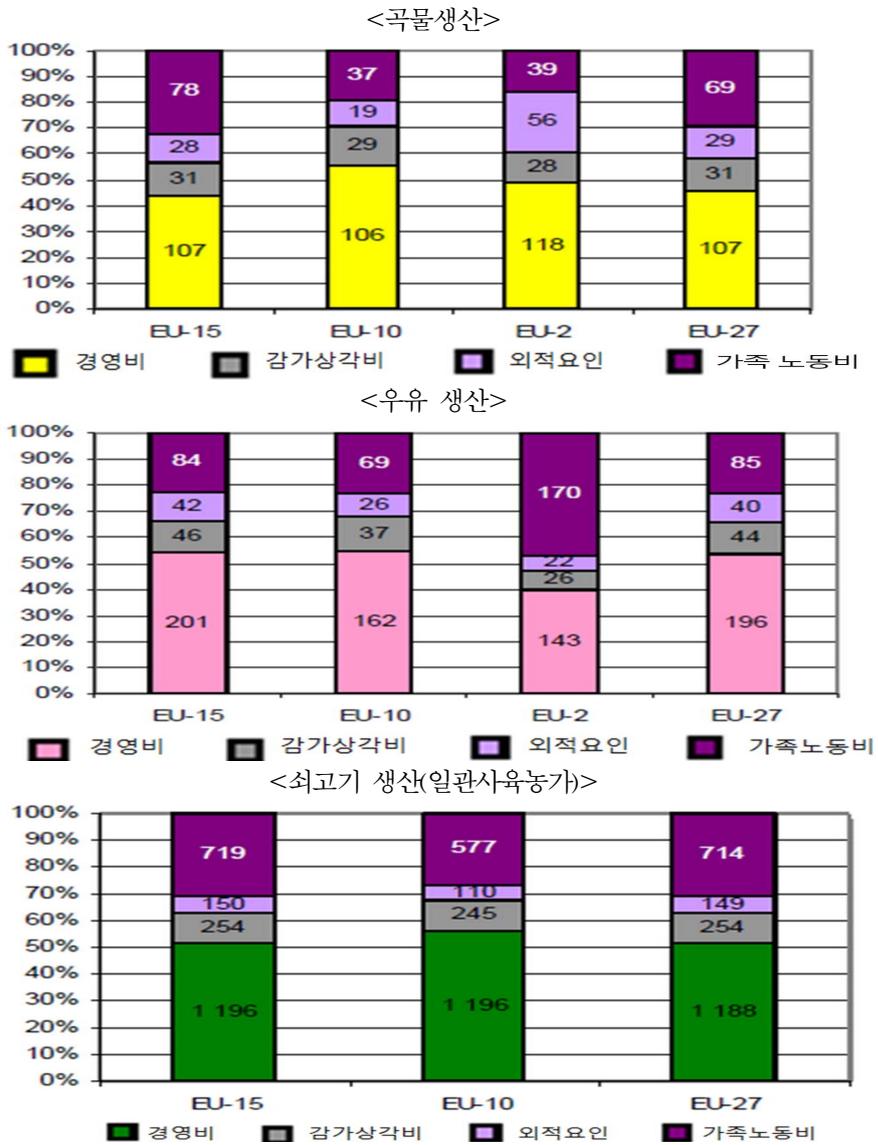


주: 비용 데이터 중 상품생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원국의 농가는 조사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EU FADN - 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그림 18>과 같이 총경제적 비용에서 경영비의 비중은 40~55%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평균적으로 경영비의 비중은 축산부분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그룹 중, EU-10은 외적요인과 가족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은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의 경우는 55%로 총경제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EU-10과 EU-2의 감가상각비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건물과 기계의 노후화와 자산의 수명이 길며,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EU-2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투입노동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외적요인과 가족노동비는 총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당 매우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총노동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EU-2의 곡물과 우유 생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곡물 생산 농가는 고용노동에 의존하지만 우유생산농가는 가족노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품목의 총경제적 비용 중 외적요인과 가족요인의 비중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림 18 EU 그룹별 총경제적 비용 구성(2007년)



자료: EU FADN - DG AGRI, Model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총경제적 비용에 따라 <표 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4 총경제적 비용에 따른 EU회원국 분류

구분	국가
EU-27의 평균보다 총경제적 비용 낮은 국가	스페인,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 라비타, 폴란드, 불가리아
EU-27의 평균과 총경제적 비용 비슷한 국가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몰타, 루마니아
EU-27의 평균보다 총경제적 비용 높은 국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자료: EU FADN- DG AGRI, Farm economic brief, July,2011.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슬로바키아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밀과 우유의 총경제적 비용은 낮지만 쇠고기에 대해서는 높은 편이다. 또한 포르투갈의 우유와 쇠고기의 경영비는 낮은 수준이지만 가공곡물의 경영비는 높은 편이다.

총경제적 비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높은 총경제적 비용은 대부분 지급이자가 높기 때문이지만 반면 루마니아는 낮은 곡물 산출량과 우유생산에 많은 가족노동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Farm Economics brief EU production costs overview, 2011.6.